

# 최근 개관한 새 광주시립미술관 관람 환경 '낙제점'

## 바닥 광택페인트로 빛 반사...조명시설 들쭉날쭉

최근 개관한 광주시립미술관의 전시 공간에서 미술품 관람 분위기를 해치는 문제점들이 발견돼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시립미술관의 전시공간을 대표하는 1전시실의 경우 바닥에 광택페인트로 마감한 탓에 조명빛이 반사되는 것은 물론 작품의 그림자가 바닥에 투영돼 시선을 방해하고 있다. 또 3전시실에 설치된 소화전은 전시에 집중하고 있는 관람객들의 감상 분위기를 깨고 있다.

지난 11일 개관한 시립미술관은 현재 '광주미술현장'전, '하정웅 콜렉션 특선'전, '미술이 놀자'전 등 개관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1층 1전시실의 경우 바닥면을 목재나 무광택 재질로 마감한 여느 미술관과 달리 광택페인트로 칠해 빛이 반사돼 작품의 그림자를 형성, 어수선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시민 김모(35·광주시 서구 풍암동)씨는 "조명빛과 작품의 그림자가 바닥에 어른거려 작품을 제대로 감상하기 어려웠다"며 "광주미술을 대표하는 공간이니 만큼 서둘러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3층 전시실도 관람 분위기를 저해하는 마찬가지로, 전시공간에 소화전이 설치돼 있어 작품을 순차적으로 감상하던 관람객들이 관람 도중에 소화전을 맞닥뜨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또 1전시실 일부 공간에는 천정(5.5m)에 조명등이 매달려 있어 전시작품의 색감이나 질감을 제대로 감상할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높은 천정에서 빛이 내려오는 바람에 일부 작품의 경우 작품 자체에 그림자가 형성되고 있으며 빛의 사각지대에 놓인 작품도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 문화계에서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려 259억원을 들여 신축한 미술관의 보완공사를 위해 또 다시 혈세가 투입돼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든 점을 아쉬워하고 있다.

공사과정에서 시설 사용주체인 시립미술관과 시공사간 긴밀한 논의만 있었어도 현재 드러난 여러가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밖에 관람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인 1층 아트숍과 3층 카페테리아 공간도 아직까지 입주업체를 구하지 못해 시설을 늘리고 있어 정상화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시립미술관 관계자는 "대형설치 작품을 전시할 때를 대비해 전시실 바닥을 목재로 하지 않았으나, 페인트로 시공했을 때의 문제점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며 "현재 진행중인 전시가 끝나는 대로 1층 바닥 등 시설보수에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최근 신축 개관한 광주시립미술관의 일부 전시실 바닥이 광택페인트로 마감돼 작품 그림자와 조명빛이 반사되는 등 관람분위기를 해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디지털 + 인간적 감성

### 김영희 'Digital Composition'展 31일까지 무등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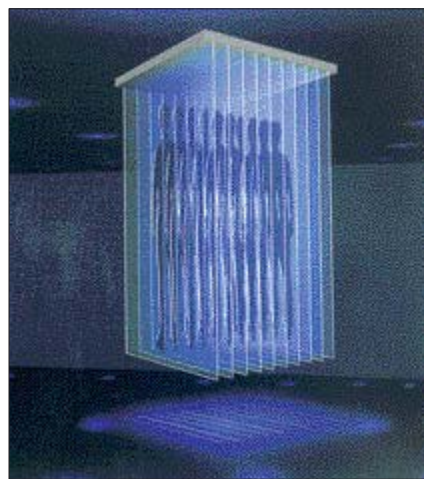
조각가 김영희씨가 31일까지 무등갤러리에서 'Digital Composition'을 주제로 전시회를 갖는다.

김씨는 이번 개인전에서 빛을 모터프로 차가운 매체인 디지털에 LED조명, 광섬유를 접목, 인간적인 감성을 불어넣은 설치·영상 작품을 선보인다. '빛의 폭포'와 'Sentimental'은 광섬유와 LED조명을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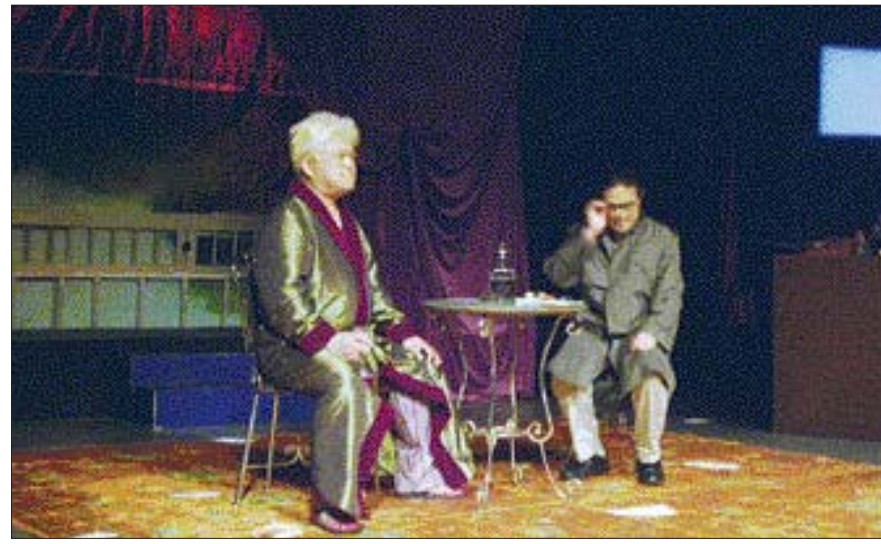
흔하고도 입체적인 공간을 연출하고 있으며, 'Light' 연작은 스테인리스와 빛의 조합으로 새로운 조형세계를 보여준다.

조선대 미술과를 졸업한 뒤 전국조각가협회, 남도조각가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김영희 조형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문의 062-515-0480.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Sentimental'



## 연극 '황혼녘에 생긴 일'

### 극단 DIC 31일, 11월 1~3일 광주 공동예술극장

극단 DIC(Dramatic Imagination Community)가 연극 '황혼녘에 생긴 일'을 무대에 올린다. 31일 오후 8시, 11월 1~3일 오후 5시·8시 공동예술극장.

인간 내면의 부조리를 희극적이면서도 비극적으로 그린 독일 작가 프리드리히 뉘렌 마르크의 대표작인 '황혼녘에 생긴 일'은 노벨상 수상자인 작가 코르베스와 그의 뒤를 쫓는 사립탐정 호퍼를 내세워 위선으로 가득 찬 물질 만능의 현대 사회를 풍자한 부조리 미스터리 극이다.

22편의 범죄소설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코르베스는 살인 장면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유명한 작가다.

코르베스의 소설과 현실의 사건을 하나

하나 연관시켜 연구해온 탐정 호퍼는 22편의 작품 내용을 분석한 결과 살인극의 주인공이 바로 코르베스라는 사실을 알아낸다.

유명 작가를 조사하면서 파산 직경에 이른 호퍼는 코르베스를 경찰에 고발하는 대신 돈을 요구하지만 코르베스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범죄 내용을 순순히 인정한다.

지난 2006년 전국연극제에서 연기상을 수상한 윤희철씨가 작가 코르베스역을 맡아 열연하며 이현기·김경곤·이현진씨가 함께 호흡을 맞춘다. 연출은 임흥석씨. 문의 062-514-57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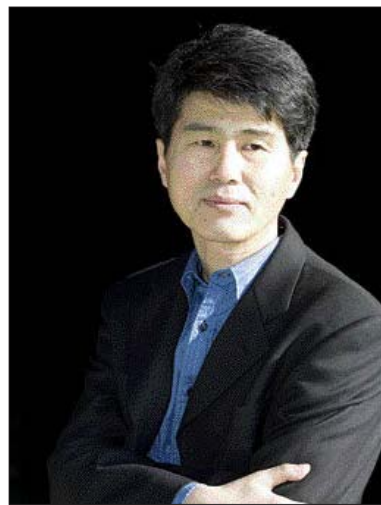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김유정문학상 수상 윤대녕 초청 강연

### 청년작가포럼, 31일 광주 북구향토문화센터

광주·전남민족문학작가회의 청년작가포럼(대표 김형중 조선훈 교수)은 최근 중편소설 '제비를 기르다'로 '제1회 김유정문학상'을 수상한 윤대녕(45·사진)씨를 초청, 강연회를 마련한다.



'오월문화관'과 함께 하는 시민문학 프로젝트 '萬年筆(만년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31일 오후 6시30분 광주 시 북구 중흥동 북구향토문화센터 2층에서 열리는 이번 강연에서 윤씨는 '한국 현대소설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주제로 50분 동안 시민들을 만나게 된다.

윤씨는 강연을 통해 그동안 펼쳐왔던 작품 활동 전반에 대한 소개와 함께 소설 쓰기와 관련한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시작해 한국 소설의 이해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이날 강연에 앞서 청년작가포럼은 '오월문학을 아시아의 품으로'를 주제로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 영화권정권제 도입입니다

영화권정권제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가 11월 14일 실시됩니다. 투표는 전국 1,000여 개 투표소에서 실시됩니다. 투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투표 방법: 투표용지 1장, 투표용지 2장, 투표용지 3장, 투표용지 4장, 투표용지 5장, 투표용지 6장, 투표용지 7장, 투표용지 8장, 투표용지 9장, 투표용지 10장

투표 결과: 투표 결과에 따라 영화권정권제가 도입되거나 도입되지 않습니다.

### 새나라

새나라는 대한민국의 새나라입니다. 새나라는 대한민국의 새나라입니다. 새나라는 대한민국의 새나라입니다.

새나라는 대한민국의 새나라입니다. 새나라는 대한민국의 새나라입니다. 새나라는 대한민국의 새나라입니다.

### 레드옥스

장고형 대망절

장구최소 90~60% 할인

레드옥스는 장고형 대망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장구최소 90~60% 할인을 제공합니다.

### 중고자동차 전차종 매입·판매

중고자동차 전차종 매입·판매

중고자동차 전차종 매입·판매

중고자동차 전차종 매입·판매

### 미성자동차산업(주)

1534-8300

미성자동차산업(주)은 자동차 부품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